

어린이주일
설 교

어린이를 용납하는 교회

<마가복음 10:13~16>



곽용길 목사 (오키나와교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았다.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셨을까?

1. 예수님 자신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땅에 오심으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셨다.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눈높이를 낮추셔서 어린아이로 오셨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신다는 귀한 의미를 보여주신 것이다. 어린 아이들의 이해할 수 없는 상태와 모습을 이해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어렸을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큰 기준으로 요구할 때도 있다. 어린이는 온전하고 성숙한 인격체가 아니다. 실수하고 잘못을 수 없이 반복할 수 있는 시기이다. 합리적인 것이 잘 통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이해하고 기다려줘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다른 동물들처럼 태어나자 걷거나 뛰거나 행동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수천 번 반복해야 “엄마”라는 말을 하고, 수없이 넘어져봐야 한번 일어서면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런 연약하고 미성숙한 시기를 경험하신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용납하는 신도,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2. 주님께서는 말로 축복하시면서 아이들을 용납하신다.(16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저는 어렸을 때에 참 육을 많이 듣고 차랐고 참 육을 잘했다. 육을 잘해야 싸움에서 유리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말씀이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입에서 육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스폰지와 같아서 축복을 많이 들을수록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 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마18: 5 ~ 6) 고 엄히 경계하셨다

우리는 자녀들을 마치 내 소유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다루었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화가 난다고 비수로 찌르듯 말로 상처 준 것과, 흘기는 눈과 몸으로 위협한 것들을 회개해야 한다. 또한 올바른 부모의 모습과 신양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한다. “문제 있는 아이는 없고 문제 있는 부모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아이들에게 축복의 말로, 소망의 말로, 위로의 말로 아이들을 용납하시기 바란다.

3. 주님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으로 용납하신다.(16절)

주님께서는 안으시고 악수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명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온 모든 어린아들을 한 명씩 모두 악수하고 악수하시고 축복한 것이다. 어른들은 일단 말로 아이들을 잠잠하게 한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의식 중에 “나중에” “다음에”라는 말을 한다. 오늘 예수님은 “다음에 와라 그때는 악수하고 축복해줄게.” 하지 않으셨다. 오늘 제자들도 “다음에 와라 지금 예수님은 바쁘다.” 안가고 계속 귀찮게 하니깐 오늘 본문에는 “꾸짖었다.”고 말한 것이다.(13절) 예수님은 그런 모습에 노하셨고 즉시 어린아이들을 악수하고 악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셨다. 방해꾼들로 생각지 않았으셨다.

최근 한국의 식당은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을 받지 않는 식당도 생겨나고 있다. 사실 교회 안에 아이들이 오게 되면 교회 공간이 지저분해지고 낙서하기도 하고 고장나는 것들도 많이 생겨난다. 그래도 교회는 예수님이서 축복하시고 용납하셨던 것처럼 지역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문턱이 낮아지고 눈높이를 맞춰서 아이들이 오고 싶은 공간으로 변화하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YMCA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東京◆ホテル：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営業。

10名様～200名様の会議及び宿泊研修(50名)も可能。

◆スペースYホール：20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グ・カヤグム・舞踊) ◆韓国語講座

◆YMCA東京日本語学校(3ヶ月～2年、短期研修)

関西◆ほんご教室(新規開講・募集中) ◆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グ)

税込	平日	休日
シングル	¥6,700	¥6,200
ツイン	¥10,500	¥9,800
トリプル	¥13,500	¥12,600
※朝食¥200(宿泊者価格)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楽町2-5-5 ☎03-3233-0611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3-14-15 ☎06-6981-0782

관동지방회

제69회 정기총회 개최 선교사 가입식과 목사 안수식을 거행

관동지방회 제 69 회 정기총회가 2018년 4 월30일,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에서 총대 97 명 중 74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개회예배는 지방회장 장경태목사의 사회로 한국의 경북노회장 이현윤목사의 ‘싸움의 정석’ (삼상17:41-47)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은 후, 부회장 김병철 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이 거행 되었다. 회의에는 각부 보고를 하고 각 교회가 청원한 장로 중원에 대한 건을 승인하였고(동경제일교회 1 명, 요코하마교회 1 명, 카와사키교회 1 명, 한사랑교회 2 명), 신년도 예산안은 21,379,638円(그 중에 14,232,000円은 총회 분담금)이 승인되었다.

폐회예배에서는 손만석 목사(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의 선교사 가입식과 김수명목사(동경제일교회)의 목사 안수식을 거행 하였다.



관서지방회

제69회 정기총회 개최 각교회 장로 증원이나 예산안 등 승인

지난 5월 4 일(금), 오사카북구교회에서 제69회 관서지방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는 총대 77명 중 72명의 출석으로 성회되었다. 개회예배는 김도영 부지방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김필순 목사가 「서로됨을 기초로 삼아」(갈 6: 2)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현금은 교토남부교회 히가시 9조 어린이식당의 사역을 위해 드려졌다.

박성균 지방회장의 사식으로 성찬식이 거행된 후, 이승후 목사, 조원철 목사의 선교사 가입식 및 배정에 목사(교토교회 부목사)의 안수식이 행해졌다.

일본기독교회 긴기중회 의장인 아리가 후미히코 목사, 총회장 김종현 목사, 서부지방회장 한세일 목사의 인사 후에 의사가 진행되어 결의되었다. 주된 내용은 각 교회에 의한 장로증원청원(교토 2 명, 교토남부 1 명, 오사카북구 3 명, 오사카 3 명) 예산 승인이었다.



서남지방회

제69회 정기총회 개최 예산안, 2교회의 장로증원 승인

서남지방회 제68회 정기총회가 2018년 4 월30일, 총대 24명 중 23명이 출석한 가운데 후쿠오카교회에서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부회장 김마리장로의 사회, 지방회장 이해란목사의 설교, 부회장 김인과목사의 성찬식 사식으로 진행되었다.

총회에서 김병호 총간사, 한국 경기노회에서 노회장 마두락목사를 비롯하여 9 명, 일본기독교단 큐슈교구에서 쿠사카베켄시부의장, 니이보리마사유키 서기, 일본그리스도교회 큐슈중회에서 사와마사유키 의장, 김태인 전도사, 이병우선교사, 일본기독교

중부지방회

제55회 정기총회 개최 개회예배에서 선교사 가입식도 거행

2018년 5 월 3 일, 나고야미나미교회에서 중부지방회 제55회 정기 총회가 개최 되었다.

개회예배는 부회장 최광일장로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지방회장 최화식목사가 <은혜가 넘치는 중부지방회> (눅4:31-44)의 제목으로 설교한 후에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에서 선교사로 파송 받은 채은숙목사의 가입식과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회의는 총대원 총29명 중, 27명이 출석으로 개최하여, 총회장 김종현목사, 일본기독교단중부교구 의장 요코야마 요시키목사가 내빈 인사를 하였으며, 각 보고와 함께 각 교회에서 요청한 장로 선출(나고야교회 2 명, 기후교회 1 명)과, 미자립교회 선교비 보조, 김지일목사의 무임목사 연장, 홍영황목사의 은퇴 및 2018년도 예산안 5,233,555円 등이 승인되었다.



서부지방회

제34회 정기총회 개최 예산안, 임시당회장 등 승인

2018년 4 월30일(월/축), 코베동부교회에서 서부지방회 제34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지방회장 한세일목사의 「주님을 위하여 지음 받은 백성들」 (사43:18-21)이라는 제목의 설교 후에, 한승철목사의 사식으로 성찬식을 거행했다.

그리고 총대 38명 중, 31명의 출석으로 개회가 선언되었고, 서기가 제33회기 중의 소천자들을 소개하고 김영주목사가 기도했다.

내빈 소개(총회대표 김병호총간사, 관서지방회대표 박성균회장, 일본기독교단 효고교구대표 히가시지마히로토부의장)와 그 내빈들로부터 축사를 받았다.

주요 결의사항은 2018년도 예산안(11,813,129엔)심의, 임시당회장의 승인, 차기 정기총회의 일정과 장소를 결정하였다.

(보고 : 나카에 요이치)



단축고쿠교구 오바타다이사쿠 의장이 내빈으로 왔다.

회의에서는 각종 보고가 있은 후에 후쿠오카교회가 청원한 장로 2 명 선출과 고쿠라교회가 청원한 장로 1 명 선출이 승인되었다. 계속해서 예산안 6,000,821円이 통과된 후에 폐회하였다.



제1회 상임위원회 개최 장재형목사 그룹에 대한 입장 표명기로

지난 2018년 4월 10일, 교코남부교회에서 제54회 총회기 첫 상임위원회 개최되어 상임위원 24명 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보고 및 안건심의가 있었다.

중요한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지난 정기총회에서 승인되지 아니한 2017년도 결산과 2018년도 예산안을 승인.
- (2) 재정위원회의 부담금 규정을 승인.
- (3)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 총간사로 취임한 김성제목사를 총회 기관목사의 위치를, 그리고 그 소속은 중부지방회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승인.
- (4)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RAIK) 소장 佐藤信行씨의 정년 은퇴



김승정장로 장립식 거행 재일 3세로서 교회 봉사에 기대



2018년 4월 22일 주일 오후 4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토요하시교회 장로 장립식이 거행되었다. 정수환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진행되었으며 조상호목사(아이린전도소)가 「고린도 후서 5장 9절」(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그 후 최화식목사(중부지방회장, 나가노교회)의 사회로 취임식이 진행되었으며 이진용목사(토요타메구미전도소)와 권윤일목사(하마마츠교회)의 권면이 있은 후 전병옥목사(나고야미나미교회)의 축사가 있었고 정수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장로 장립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였다.

김승정장로는 한국 경상남도에 본적을 두고 있으며 1960년 1월 8일에 출생하여 같은 해에 유아세례를, 2011년 1월에 집사로 임명되었다.



2장로의 장로 장립식 거행 교회 창립 97주년 기념식과 더불어



오사카교회에서는 지난 5월 13일(주일) 교회 창립 97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거행하면서 양양일, 정광남 장로 장립, 장신영, 김옥경 명예장로 추대, 김수미, 김옥연 명예권사 추대 외, 9명의 명예집사 추대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당회장 정연원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자매교회 서울 노량진교회 여충호목사가 <그리스도인의 순종> (창22:1-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장로장립식은 관서지방회장 박성균목사에 의해 서약, 안수기도, 선포가 있었고, 명예추대는 당회장 정연원목사가 선포하였다. 금번 행사의 축하를 위해 한국의 자매교회인 노량진교회와 부산 양정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식전을 빛내 주었다.

금번에 장립받은 양양일 장로(1967년생)와 정광남 장로(1963년생)는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 3세로서 오사카교회의 김덕성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으며, 두 명 모두가 청년회 전국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오사카교회 뿐만 아니라 관서지방회 및 총회를 위해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

와 함께 지급되는 퇴직금의 보조를 승인.

- (5) 크리스천투데이 등 장재형목사 그룹에 관한 일본기독교단 의장의 성명문(2018年1月27日付け『教団新報』第4875号に掲載)을 참고하여 총회의 입장을 표명하기로 하다.
- (6) 각 지방회 무임목사에 대하여, 소속 지방회가 관리 처리하기로 하고, 목사명부를 정리하기로 하다.
- (7) 日立교회의 해산 요청을 승인하고 총회명의의 토지에 관한 것은 총간사와 관동지방회가 검토하기로 하다.
- (8) 「천황 퇴위 및 즉위 행사에 정교분리에 관한 요망서」를 총회 이름으로 제출하기로 하다.
- (9) 금년에 「제주도 4·3사건」 70주년을 맞이하면서 현지 연수회를 가지기로 하고 세부 계획은 사회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 (10) 차기 상임위원회는 2018년 10월 16일(화) 11:00, 大阪KCC에서 가지기로 하다.



김성숙장로 장립식 거행 1997년 집사 임명받아 많은 봉사



지난 2018년 5월 20일 성령강림주일, 나고야교회에서는 김성숙장로 장립식을 중부지방회 각교회에서 많은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임시당회장 정수환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는 중부지방회장 최화식목사가 <하나님의 은혜> (고전15:10)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고, 이어서 장로장립에 대한 서약, 안수, 선포로 이어졌다.

금번 장립을 받은 김성숙장로는 1955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1997년부터 나고야교회의 집사로서, 2014년부터 권사로 섬겨왔다.



최윤성장로 장립식 거행 명예권사, 명예집사 추대식도 동시에



2018년 5월 20일(성령강림절), 후쿠오카교회에서는 최윤성장로 장립식 및 이옥기명예권사, 심주택명예집사 추대식이 거행되었다.

9년 만에 거행된 장립식은 당회장 김인과 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어 주문홍목사가 <더 큰 은사를> (고전12:26-3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서남지방회장 이혜란목사의 사식으로 최윤성장로의 장립식이 진행되었다.

장립식에는 서남지방회 소속 교회들 뿐만 아니라, 일본그리스도교회, 한국의 홍성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장립식과 추대식을 축하하였다.

금번 장립을 받은 최윤성장로는 1963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유학생으로 도일하여 동경, 삼포로, 오키나와에서의 생활을 지나 2002년부터 후쿠오카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섬겨왔다.

여성을 위한 전화상담

DVL나 자녀들의 문제 등으로 혼자서 고통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 것은
해결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06-6731-1616

<전화접수> 제1·3·5주 토요일 정오12시~오후4시

일본어 제1·3·5 토요일 한국어 제1·3 토요일





황의생목사가 소천 총회장 역임, 32년간 나고야교회 섬겨



2018년 5월 11일, 나고야교회 황의생 목사가 소천하여 나고야교회에서 아라이유키목사의 사식으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향년 85세)

고 황의생목사는 1932년 일본에서 출생하여 도시사대학 신학부, 도쿄신학대학원을 졸업, 캐나다 토론토대학 낙스신학교에 유학하였다. 1960년 목사 안수를 받고 10년 간 니시아라이교회 목회를 하고 1970년부터 은퇴하는 2002년까지 32년간 나고야교회를 섬겼으며, 중부지방회장 및 제36회기 총회장을 역임하였다.

일본에서 출생인 재일 2세로서 교회와 지방회 및 총회를 섬겼으며, 특히 사회복지법인 에이신 보육원과 노인홈 에이세이원을 설립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는 나고야교회로 발전시킨 귀한 생애였다.

그러한 공적이 인정되었는지 2000년에는 캐나다 맥길대학 신학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전국 교회 기도 달력

* 선교위원회는 금년 매주일에 전국의 각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기도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에 동참합시다.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위원회)

<제18회 일/한/재일 국제심포지움 참가기>

인종차별은 비인간적

지난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18회 일/한/재일 국제심포지움이 일본 그리스도교협의회와 한국의 기독교교회협의회, 그리고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 주관으로 4년만에 개최되었다.

특별히 이번 심포지움에는 양국의 가톨릭교회도 참가하여서 함께 이주민 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첫날에는 나섬교회의 몽골학교, 대한성공회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정숙자 목사의 이주여성교회를 견학하였다. 일본과 달리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시설들을 보고 일본측 참가자들은 부러운 마음을 가지기도 했다.



서부 청년회와 친목회

서부련 정기총회 후에 전협 임원들이

2018년 4월 8일(주일) 무코가와(武庫川)교회에서 서부지방청년회와 청년회 전국협의회가 공동주최하여 친목회를 가졌다.

15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한승철목사의 설교로 개회예배가 시작되어 서부지방 청년연합회의 정기총회와 함께 무코가와교회 여성회의 정성어린 요리를 나누면서 친목회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가졌다. 교류 게임, 윤미카 자매의 피아노와 황이부형제의 기타연주로 찬송하며 청년들의 마음이 하나되었다.

(보고: 오진아)



<박현옥목사 주소 변경의 알림>

〒193-0803 東京都八王子市橋原町1811-1 Tel/Fax : 042-686-3888
e-mail : hwpark1@wine.plala.or.jp

6월에 전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 3日 : 爰隣教会(趙尚浩牧師)
- 10日 : 岐阜教会(高誠牧師)、大垣教会(蔡銀淑牧師)
- 17日 : 四日市教会(休止中)、新儀教会(崔炳釤牧師)
- 24日 : 京都教会(林明基牧師)、京都南部教会(許伯基牧師)

공동성명서를 채택

둘째날에는 양국에서 각각 4명의 기조보고를 통해 현재 각국의 이주민 실태와 교회의 대처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4명의 발제자를 통해 앞으로의 과제와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셋째날에는 “인종차별은 비인간적인 범죄이며 죄악이다”라는 공동성명서를 채택 후 일본측 참가자들은 위안부 수요집회에 참석하여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일본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보고: 신용섭목사)



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110周年 記念大会・合同修養会案内

日時: 2018年8月12日(主日) 19:00~15日(水) 12:00

場所: 在日本韓国YMCA(東京都千代田区猿楽町2-5-5, Tel: 03-3233-0611)

●標語: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宣教課題: ① 다양한 자체를 감싸는 교회
② 젊고 어린 생명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
③ 복음과 공정한 질서 위에 세워지는 교회
④ 화해와 공생평화를 지향하는 교회

●内容: 開会礼拝、主題講演、宣教110周年記念大会、特別講演、讃美と証し、夕礼拝、分団討議、青年会の集い、女性会の集い、青年会の集い、壮年会(男性)の集い、教役者の集い、その他

●宿泊: 各自、各教会別に予約

●参加費: 1人5,000円 (4回食事代)

●参加申請: 各地方会書記

(200名: 関東80名、中部25名、関西50名、西部25名、西南20名)

●参加申請: 2018年6月30日まで

* YMCA에 숙박을 희망하시는 분은 총회 사무국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